

아시아경제

장하성 주중 대사, "미중관계 변화 가장 큰 관심사"

기사입력 2021-01-25 15:21

내년 한중 수교 30주년, "제2의 수교 버금가는 기틀 만들 것"

[아시아경제 베이징=조영신 특파원] 장하성 주중 대사가 올해 한중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.

장 대사는 25일 주중 대사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"미·중 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갈 지가 가장 큰 관심사"라면서 "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미·중 관계 변화가 있을 것이고, 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"고 말했다.

장 대사는 또 올해 한중간 양자관계에서 볼 때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.



그는 "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했고, 공식적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"이라며 "내년 이 한중 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미리 틀을 만들어야 하는 준비 기간이기도 하다"고 말했다.

장 대사는 이어 "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제2의 수교에 버금가는 한중 관계 기틀을 만들 것"이라며 "한중 관계 재도약 발판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, 올해 그 기틀을 다지는 여러 활동을 할 계획"이라고 소개했다.

장 대사는 또 "대사관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 변화 어떻게 변할지 긴밀하게 관찰하고, 중국 내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다"며 "한미 관계,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는 것 등 앞으로 정세 변화에 상당히 중요한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외교 당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추진하기로 했다.

외교부 당국자는 시 주석의 올해 방한 계획에 대해 "시 주석의 방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코로나19)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"면서 "시 주석의 방한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고, 중국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"고 설명했다.

베이징=조영신 특파원 ascho@asiae.co.kr

- ▶ 2021년 신축년(辛丑年)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?
- ▶ 발 빠른 최신 뉴스,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
- ▶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! 필수 체크!

<©경제를 보는 눈,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>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277&aid=0004834857>
